

스타, 오늘은? | '무도' 멤버들 성화 봉송 유재석(사진), 박명수, 정준하, 하하 등 MBC '무한도전' 멤버들과 가수 수지가 평창 동계올림픽 성화 봉송 첫 주자로 나선다. 이들은 1일 김연아, 이상화, 차두리 등 스포츠스타들과 함께 인천대교 구간을 성화를 들고 달린다.



송중기·송혜교(맨 오른쪽)가 10월 31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 야외정원에서 양가 부모와 300여 하객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예식비용만 9000만원...중국 매체는 드론까지 띄워 생중계

송중기·송혜교 '세기의 결혼식'

송중기, '태후' 직후 중국서 1000억 매출 송혜교도 현지 광고모델·영화 안착 성공 사드 해빙...한류스타 부부 시너지 예고

송중기(32)와 송혜교(36)의 웨딩마치는 한류 톱스타 커플의 결혼답게 상당한 경제효과를 기대케 한다. 특급호텔 예식과 그 비용이 먼저 호기심을 끌지만 마침 결혼식에 맞춰 전해진 한·중 사드갈등 봉합과 교류 재개 움직임으로 한류를 상징하는 '송송 커플'을 향해 더욱 뜨거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특급호텔 예식...1억원 미만 예상

송송 커플은 결혼을 결심하고 예식장소로 큰 이견 없이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을 택했다. 최고급 예식이 가능한데다 첩보보안 속에 식을 치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 하객이 비교적 적은 프라이빗 웨딩으로 주로 활용되는 곳이자, 야외 공간과 실내 홀이 연결된 내밀한 구조 역시



중국 톱스타 장쯔이(가운데)가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에 참석해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다. 사진출처 | 장쯔이 웨이보

주요 선택요소로 반영됐다.

웨딩업계에서는 송송커플의 예식비용을 1억원 미만(하객 300명 기준)으로 보고 있다. 한 웨딩컨설턴트는 “보통 영빈관 예식은 100~

200명 규모 하객을 초대하는 하우스 웨딩에서 선호한다”며 “최근 특급호텔 예식용 꽃장식 가격 거품이 많이 빠지면서 10월 성수기라고 해도 9000만원 정도 비용이 들었을 것으로 예상한

다”고 밝혔다.

물론 일반인이려면 엄두를 내지 못하는 금액이지만 송송 커플은 자신들의 특수한 상황은 물론 대부분 연예인인 하객들의 프라이버시도 고려해 영빈관을 택했다.

●결혼 효과...매출까지 연결될까

송송 커플은 연예인 가운데서도 연간 수입이 많게는 100억 원대에 이를 만큼 최상위 매출을 기록해온 스타들이다. 중국이라는 든든한 활동 무대가 있어 가능하다. 게다가 두 사람은 중국 한류에 다시 불을 지핀 드라마 '태양의 후예'(태후)의 남녀 주인공으로 현지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류스타로도 통한다. 결혼 뒤 현지 활동에 나선다면 '역대급' 몸값 기록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광고업계의 전망이다.

송중기는 '태후'가 방송된 2016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약 30개 브랜드 모델로 활동, 1000억 원의 누적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후' 신드롬이 일어나면서 국내 모 화장품 회사는 그에게 중국을 포함한 세계 광고 모델을 조건으로 90억원의 계약금을 제시해 화

제가 되기도 했다.

송혜교의 중국 내 매출도 상당하다. 오랫동안 화장품 등 광고모델로 유지해왔고, 우위선 감독의 '태평천', 왕자웨이 감독의 '일대종사' 등 거장들과 손잡고 무게감 있는 작품에서 주연을 맡았다. 현지 영화계에 안착한 유일한 여배우로도 꼽힌다.

●사드 해빙...최대 수혜자 지목

결혼과 함께 송송 커플은 더 큰 시너지를 낼 가능성도 점쳐진다. 마침 한·중 양국은 지난해 7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로 얼어붙었던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합의했다. 갈등을 봉합하고 전방위 교류를 재개하자는 선언이, 두 사람의 결혼식 당일 나왔다. “한류 재개 움직임에서 최대 수혜자가 송송 커플이 될 것”이라는 데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실제로 결혼식 현장에서는 중국에서 얻는 두 사람의 번합없는 인기가 목격됐다. 중국 포털 봉황망은 첩보보안 속에 예식장 주변에 드론 2대를 띄워 신랑신부 모습을 실시간으로 촬영해 생중계했다.

이해리 기자 golf1024@donga.com

손편지 낭독한 이광수...축가 부른 박보검

“송송 부부 보러왔다” 해외 팬들 대거 운집

“서로의 부족함은 사람으로 채우고 살겠습니다.”

시종일관 웃음이 떠나지 않던 새 신랑이 끝내 눈물을 흘렸다. ‘삶을 다하는 그날까지 사랑하는 사람을 존중하고 살겠다’는 혼인서약서를 읽다 솟아오른 벅찬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세기의 커플’ 송중기(32)와 송혜교(36)가 서로를 생각하며 쓴 혼인서약서를 읽으며 부부가 됐다.

두 사람은 이날 서로 손을 꼭 잡고 동시 입장했다. 송혜교는 ‘순결’ ‘틀림없이 행복해진다’라는 꽃말을 가진 ‘은방울 부케’를 들었다. 사시사철 볼 수 있는 꽃이 아니라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부케다.

이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기 위해 이들의 연인에게 절친들도 한 자리에 모였다. 송중기와 KBS 2TV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에서 호흡을 맞추고, 현재 송혜교와 한술밥을 먹는 유아인이 먼저 편지를 낭독했고, 이광수도 한 줄 한 줄 써온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송중기의 소속사 후배인 박보검은 결혼식 2부에서 피아노를 치며 축가를 불렀다.

둘은 톱스타 커플답게 국내외 팬들은 물론 해외 언론매체의 관심을 받았다. 중국 봉황망, 대만 TVB 등이 현장에서 열린 취재 경쟁을 벌였다. 중국 봉황망은 드론 2대를 띄워 결혼식 장면을 촬영하고 인터넷으로 생중계했다.

해외 팬들도 대거 몰렸다. 예식이 진행되기 4시간 전인 낮 12시부터 영빈관 근처는 호텔이



유아인 박보검 김희선 조재윤 등 연에게 스타들이 '세기의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여했다. 김진환 기자 kwangshin00@donga.com

용객까지 합세해 북새통을 이뤘다. 차도르를 두른 해외 팬도 조금이라도 가까이에서 축하하기 위해 식당 근처를 떠나지 않았다. 일부 팬들은 영빈관이 창박으로 보이는 객실을 잡고 결혼식을 지켜보기도 했다. 중국, 대만, 홍콩, 일본에서 왔다는 이들 해외 팬들은 현장을 보기 위해 전날 입국해 하루를 기다렸다.

호텔 관계자는 “해외 관광객들이 일찌감치 객실을 예약했다”면서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영빈관이 보이는 ‘시티뷰’는 평소보다 많이 찾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20대 중국 여성 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4명의 20대 중국 여성들은 “송송 커플을 보기 위해 다 같이 휴가를 냈다”며 뜨거운 ‘팬심’을 드러냈다. 50대 일본 여성은 “여행 중

에 두 사람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가을동화’로 송혜교를 알고 있었다. ‘태양의 후예’를 보고 송중기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말했다.

팬들은 예식이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을 실제로 볼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하객으로 식당을 찾은 스타들을 ‘구경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팬들은 송중기와 송혜교가 작품에서 호흡을 맞춘 스타들이 영빈관으로 들어설 때마다 크게 환호했다. 중국 배우 장쯔이, 박보검, 유아인, 박형식 등이 결혼식에 초대받았지만, 이들 중 가장 큰 환호를 받은 주인공은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악역을 맡은 조재윤이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때마침 사드 해빙 분위기...날개 단 송송 부부

한류스타 광고 재개 등 관계 복원 움직임

1년간 가로막혔던 중국 한류가 해빙기를 맞고 있다. 한국과 중국이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갈등을 마무리 짓고 10월31일 양국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한류 콘텐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과의 교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중국 한류시장은 지난해 7월 사드 배치에 따른 한한령(한류 콘텐츠 금지령)으로 1년간 빙하기를 보냈다. 현지 활동과 콘텐츠 교류가 전면 중단된 ‘울스름’ 상태나 다름없었다.

중국 드라마에 출연하던 연기자들이 돌연 하차 통보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빅뱅, 엑소 등 케이팝 그룹들은 현지 공연금지 명단에도 올랐다. 중국과 합작을 진행하던 영화 기획 및 제작 역시 전면 중단됐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실력을 인정받은 감독과 배우들도 예외 없이 사드의 직격탄을 맞았다.

중국인 한류 콘텐츠 수출에 반드시 필요한 시장이다. 2015년 기준 한류 콘텐츠의 중국 수출액은 2조원(코트라 '2015년 한류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에 달한다. 같은 해 한류 콘텐츠의 전체 수출액이 3조2000억원인 사실을 고려하면 중국은 약 63%의 비중을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교류 장벽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입은 관련 업계로서는 이번 양국 관계 개선에 더

큰 기대를 품을 수밖에 없다.

중국 미디어그룹 화이브라더스의 한국 자회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 관계자는 사드 갈등 봉합이 알려진 직후 “기다려온 소식”이라며 “앞으로 양국 콘텐츠 교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중국 내 해빙 분위기는 10월 중순부터 감지됐다. 가수 비를 모델로 발탁해 광고를 촬영한 한 화장품 브랜드가 TV 광고 방송을 재개했기 때문.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이 다시 늘어날 전망이다.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무렵이다.

중국 외교부 역시 10월31일 홈페이지를 통해 “한·중 관계를 매주 중시하며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며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을 정상적인 발전 궤도로 조속히 회복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 외교부의 발표 내용과 같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10~11일 베트남에서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꺼낸다. 아직까지 ‘갈등 봉합’ 메시지만 나왔을 뿐 구체적인 개선책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중 합작영화를 준비해온 한 영화감독은 “말 그대로 해빙기일 뿐이지 아직 완전한 봄이 온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정상회담 이후 어떤 시그널이 나올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해리 기자